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카페 필로소피아·은암미술관 무료 강좌 ... 최진석 교수·나희덕 시인 등 참여

20일~11월 26일 광주 동구청

철학, 역사, 종교,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자들과 지혜를 나누는 강좌가 열린다.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이끄는 카페 필로소피아와 은암미술관은 '생각 깊은 시민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을 시작한다. 8월20일부터 11월 26일까지(오후 7시-밤10시) 10회 일정으로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은 초청강사의 강의·토론과 함께 시낭송, 음악, 연극, 영상 상영 등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다



최진석 교수



철학자 고병권



나희덕 시인

대화법연구소장이 '소크라테스와 만나다' (10월15일)로 강의한다.

'생활 속의 과학기술' (10월22일)을 주제로 문화 전남대 화공과 교수가 강연을 진행하는 시간에는 한국드론산업진흥회의 드론 시연이 이어지며 정대현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의 '언어는 맞춤안경이다' (10월 29일) 강의는 철학 연극 '올 엄마가 왜?' 공연과 함께 열린다.

그밖에 수안스님의 노래가 어우러진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 교수의 강연 '원효사의 종소리' (11월12일), 나희덕 시인이 참여하는 '불인과 사랑, 그리고 시' (11월19일)도 눈길을 끈다.

11월 26일 열리는 마지막 강의는 요즘 '핫한' 철학자 고병권(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씨가 맡는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이해 2년간 열두권의 책을 펴내고 열 두번의 강연을 진행하는 '다시 자본론을 읽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고씨는 '나는 나를 기다린다'를 주제로 강의하며 영상 '조르바의 춤'도 만날 수 있다.

무료 강좌. 사전 신청. 010-9601-8188, 010-9603-324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정기 강좌

9월 2일까지

리얼리티(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은 지금까지 토론과 인문학을 통해 자유정신을 함양하고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데 역점을 뒀었다. 이를 통해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승화의 완성'이라는 가치 창조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민인문학이 오는 9월 2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58기 강좌를 연다. 강좌는 소설 창작, 철학,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오후 7시30분)에는 이진 교수가 '소설,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목요일(오후 7시30분)에는 명예 영박사와 신우진씨가 각각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묵묵히 책을 읽자-십인십책(十人十冊)'을 진행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무비토크' 시간으로 'Again 홍상수'가 펼쳐진다. 일요일(오전 9시) '인문택시' 시간은 변산 채석강 인문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걸음 멈추고 하늘 한번 올려다 봐요

갤러리 리채 김은지 개인전 10~27일

청년작가공모지원전을 통해 올해 4명의 작가를 선발한 갤러리 리채가 김은지 작가 개인전을 10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하늘바라기(Hopefully Sk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조차 쉽게 갖지 못하는 삶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또 하늘과 여백을 통해 여유를 주고 비움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힘들게 달려온 삶에 휴식을 주고 싶은 마음도 담았다.

작품은 추상과 무의식, 현실과 실제 사이를 넘나든다.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래의 하늘처럼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하늘 역시 다채로운 감정과 표현이 담겨 다양한 감성을 전한다. 특히 다양한 색감으로 하늘과 땅, 바다의 경계를 표현하며



'하늘 바라기'

평온함을 전한다. 국민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김작가는 'paradis', 'Bare Branches', 'Sometimes in April'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초대전을 가졌으며 이번 전시는 고향 광주에서 여는 첫번째 개인전이다. 문의 062-412-00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평양통일예술단

북한 민요·민속춤 한자리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내일 평양통일예술단 등 무대

8·15 광복 73돌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울림이 전통 공연으로 펼쳐진다.

특히 분단으로 접할 수 없었던 북한의 민요와 민속춤을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토요상설공연 특별기획 '북녘소리 초청공연'을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이어져 온 '서도소리' 명인 김광속(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과 북한에서 공연예술가로 활동하던 여성들이 주축 돼 창립된 평양통일예술단(대표 방분옥)의 무대로 꾸며진다.

첫 무대는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민의 삶과 애환이 스며있는 곡 '수심가'를 김광속 명창이 펼쳐내고 이어 '놀랑', '봉금포타령·개성난봉가·연평도난봉가·풍구타령'

을 김광속 명창과 서도소리 이수자들이 함께한다. 서도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민요와 선소리, 시창, 잡가 모두를 일컫는 소리다.

두 번째 무대는 평양통일예술단이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휘파람'과 북한의 민속춤 '목동과 처녀·쟁강춤' 등을 선보인다.

한편 김광속 명창은 서도소리 보존회 이사장과 국립국악원 민속악 단원 및 악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김광속 명창과 박수영, 전효정, 윤세라, 박기욱, 이정훈, 김준식이 출연한다.

관람은 무료. 오는 18일 토요상설공연은 '우리 소리와 놀이를 찾는 예술단 노름노리'의 무대를 선보인다. 문의 062-232-159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성의 시간이 쌓이다

전남여성플라자 정명숙 초대전 9월 4일까지

(재)전남여성플라자는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 역사에서 여성을 찾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9월 4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플라자 2층)에서 열리는 두번째 전시는 분주(分株) 정명숙 작가 초대전이다.

'여(女)·시(時)·적(積)-여성의 시간이 쌓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남 역사 속 수많은 여성들의 기억과 시간들을 동그라미와 큐브에 담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정 작가는 무한 순환의 의미를 지니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그라미와 모양, 색, 크기가 완벽하게 서로 다른 큐브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쌓여가는 여성들의 시간은 삶의 흔적이 되고, 그 흔적들은 역사와 기억으로 고스란히 남겨진다. 정 작가는 동그라미와 큐브 속에 여성의 삶의 여정을 담아가며 남도 역사 속에 살아있는 여성의



'여성의 시간이 쌓이다'

숨결을 되돌아본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정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 무등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조선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담양대담미술관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문의 061-260-70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